

포천시 선수단 해단식

경기도체육대회 5연패 달성 祝賀



경기도체육대회 5연패를 달성한 선수단이 포천시 신음동 일원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승, 대회 5연패의 쾌거를 달성한 포천시선수단을 환영하는 카퍼레이드와 해단식이 지난 1일 오후 포천시 신음동 일원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마련됐다.

박운중 포천시장과 홍성훈 시의회의장, 고조흥 국회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등 모두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선수단은 종합우승기와 우승배를 시에 헌정했으며 포천시는 입상 선수와 우수지도자, 우수선수들에게 표창장과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운중 포천시장은 환영사에서 "경기장에서 발휘된 투혼과 화합의 힘에서, 포천시가 점차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2006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대회 6연패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나가기"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남에서 열린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에 포천시는 18개 전 종목에 379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15개 시·군이 겨룬 2부 대항에서 종합점수 19,905점을 획득, 2위 이천시(16,010점)와 3위 오산시(15,786점)를 큰 점수 차로 제치고 종합우승 5연패를 달성했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김석훈(이동), 최귀현(포천)優勝



포천시체육회는 지난 5월 포천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94개팀 188명이 참가해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포천시체육회는 지난 5월 포천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94개팀 188명이 참가해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체육의 일환으로 테니스 경기를 통해 동호인 자변 확대,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 지역문화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금배부, 은배부, 동배부, 여성부의 4개부 부별 개인전과 복식으로 치러진 경기에서 ▶금배부 ▶우승 김석훈(이동), 최귀현(포천) ▶준우승 육갑수(동두천), 이수모(동두천) ▶3위 신동석·김관식(동두천), 백승덕·김영숙(전곡) ▶은배부 ▶우승 신규식(와수), 유장열(와수) ▶준우승 윤용구(폭포), 김세균(폭포) ▶3위 현문섭·김장호(의정부), 이한석·박강철(이동) ▶동배부 ▶우승 조영필(이동), 황미진(이동) ▶준우승 고영일(송우), 김병국(이동) ▶한만교·한철현(이동), 이용학(충주)·김종산(우정) 순으로 순위를 차지했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신북면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신북면 체육회(회장 강병만)는 지난 3일 신북면 신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신북면 체육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신북면 신포천 축구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신북초등학교(교장 김기홍)의 야간조명시설 준공 기념과 신북면 축구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세남 신북면장, 유성현 의원 등 지역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한 기념식을 전후해 치러졌다.

이날 대회는 신포천, 태양, 신북, 기관단체 축구회 총 4개팀이 참가해 진행됐으며 신북축구회가 우승, 기관단체팀이 2위를 차지했다.

신북초 야간조명시설은 2004년 9월 최초 논의돼 2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개월 여의 공사 끝에 올해 2월 28일 준공했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탐방 | 지역체육회 14 영북면체육회 회장 안전중

내실 있는 체육회 운영 위해 개편 고려



안전중 회장
 영북면 체육회

영북면체육회는 지난 몇 년간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대외적인 행사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운영으로 지역화합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재정비해 왔다.

영북면체육회장은 영북면자율방범대 초대대장을 7년간 거쳤고, 지난 2002년부터 지역체육회를 이끌며 1번의 연임으로 지역체육의 발전과 역량 확대,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6·7대 안전중(55·사진) 회장이자 포천시체육회의 현황 및 발전상

등에 대해 들었다.

안전중 회장은 현재 철원우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높은 신망과 체육을 사랑하는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체육회를 이끌고 있다.

영북면 체육회는 1995년과 97년 사이에 구성됐으며, 안전중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4명, 사무국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의 총 9명의 임원진과 이장을 포함 120여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안 회장은 "현재 경제적인 여건과 관선도에 따라 체육회의 개편을 생각하고 있다"며 "군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목육성, 체육관련인사 등 체육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해 합리적 조직운영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북면 체육회는 2003년부터 체육회의 회비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안 회장은 "원래 회원들의 연회비 20만원으로 체육회를 운영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2003년과 2004년도 회비를 받지 않았다"며 "연중 체육회와 관련해 집행되는 예산은 임원진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영북면체육회는 연중 경기대회와 격년제의 면민체육대회(각종제) 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평균 2천~3천만원가량으로 체육회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안 회장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시에서 2천만원의 지원금이 나와 한결 수월하게 치를 수 있지만, 기타 대회에는 지역주민들 노력이라는 개회 어렵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영북면의 체육조직은 4개의 축구팀, 산정호수를 중심으로 한 축구, 운전불림장 중심의 불림, 명성테니스클럽 등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안 회장은 "영북면의 체육은 관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지 않겠냐"며 "축구, 불림, 축구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해 영북면에는 영북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이 건립돼 지역 체육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안 회장은 "이 축구장의 건립으로 최근 유소년 축구대회까지 치르는 등 활용도가 높아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북면체육회가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게이트볼장지의 선정과 개장이다.

"영북면에도 게이트볼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아 최근까지 활용되었다"며 "하지만 사용처가 사유지인 관계로 현재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 영북축구장 인근에 장소를 탐색중이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관내 14개 읍면동 체육회의 현황과 조직 및 발전 비전에 대해 각 회장을 인터뷰해 보도했다. 지역체육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공동체문화 형성해 나가는 주춧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주 >

인터뷰 14 포천시게이트볼연합회 오병익 회장

초등학교 게이트볼 보급 통해 세대간 격차를 해소한다



오병익 회장
 포천시게이트볼연합회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게이트볼은 이제 노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과로 자리 잡아가는 듯 하다.

게이트볼은 관내에서도 35개팀, 22개 경기장이 생겨날 정도로 최근 급속도로 퍼지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목이 돼 버렸다.

게이트볼 보급 초창기인 지난 2001년 회장에 취임, 1회 연임하며 현재까지 포천시 게이트볼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병익(48·사진) 회장은 포천 게이트볼연합회 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게이트볼연합회장을 작을 수락했다

는 오병익 회장.

오 회장은 현재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인이기도 하다.

오 회장은 "시 단위의 대회부터 자체 대회까지 치러지는 것을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의 단계에 올라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현상은 노인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건강하고 밝게 유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 게이트볼연합회는 오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이사(각지부회장), 사무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포천 게이트볼연합회의 구심체는 각 지부로 연합회와 더불어 게이트볼의 보급과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 회장은 "연합회 차원에서 회비 없고 각 지부별로 자체적으로 구성된 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연합회는 각 지부가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으며, 시나 대회 출전시 참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게이트볼연합회는 포천교육청과 협조해 초등학교에 게이트볼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 회장은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노인과 어린이들

의 단절된 세대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연합회장기 선거 당시 지원 받은 예산으로 관내 18개 초등학교에 1세트씩 보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일에는 포천교육청에서 게이트볼 용기구 지원 학교 담당자와 각 지역 게이트볼 강사들간의 간담회가 열려 6월 중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게이트볼 연합회는 최근 관내 각 지역의 경기장 건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의 예산은 한정돼 있어, 시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오 회장은 지역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자치 역량강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한 아파트 거주시설의 신속시 노인복지 차원에서 게이트볼 장에 대한 할애를 통해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회장은 게이트볼이 승부나 게임으로 치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직 타지역과는 기량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관내 게이트볼의 보급을 통해 기술전수 및 각종 대회를 통한 성장향상 등 대내외적으로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게이트볼은 최근 적극적인 보급을 통해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뉴시용품 포장지류

용 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가 공 제 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부유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